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기획위원회가 오늘 1시 20분에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교육부회의가 오늘 12시30분에 유치부실에서 있습니다.

아름다운 원로 나들이가 이번 주 목요일(23일)에 있습니다. 파주로 다녀옵니다. 가실 분들은 아침 9시까지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출발은 9시 30분에 합니다.

속장인도자 나들이가 다음 주 목요일(30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11월 첫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기도하며 감사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은종인 권사님이 컵 소독기를 헌물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별이 참 좋습니다. 하루에 10분 이상 가을별을 맞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출 33:12~23 / 시 99

살전 1:1~10 / 마 22:15~22

사 1:10-17

오늘 식당 봉사 : 백혜숙 백성래 정현숙 허정호 박미연 정복순 이성범

다음 주 식당봉사 : 안정숙 진정숙 이해령 최희영 오미경 문복순 김정민

오늘설거지봉사 : 4남선교회

다음주설거지봉사 : 5남선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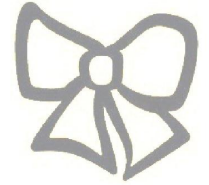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영혼의 인도자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늘 우리를 위해 새로운 계절을 마련하시고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누렇게 변한 가을 들녘과 아름답게 익은 과일은 우리의 선생이 됩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어도 날마다 결실을 향해 성실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는 이 사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올라섰던 자리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 많은 이들이 죽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자리가 죽음의 자리로 변하는 이 사회를 고쳐주십시오. 우리 사회가 좀 더 안전에 민감한 사회가 되게 하시고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헌금 영수기 및 속회 보고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고속이 김신실 김종철 고영애 김훈동 유경순 류건형 이주은 박윤숙
 박인혁 박창운 허정운 방극숙 송형운 하미림 시시권 백경림 신영희
 이부곤 이순용 이응석 이은경 이정은 이종현 임호성 정영례 정원석
 김현영 조현권 박아영 홍복선

감사헌금

김향자 박경애 양상철 박대웅 방문성 박혜경 신미라 신영희 윤여민
 임보람 이광석 이경희 전희수 조은성 정영우 김지윤 무명10

생일감사헌금

박옥식

녹색꿈헌금

박호규 강영님 신영희 무명3

백혜숙	박성희	백혜숙	박성희
신진식	최경미	백침	이은옥
장영숙	신영신	최종미	장영숙
노순옥	진정숙	노순옥	심침
박홍재	박홍재	박홍재	백묘현
권미숙	박미영	박효선	권미숙
김금순	김금순	박오복	권유금
곽권희	윤수진	김필순	김재광
안홍숙	오현정	이수정	노성희
정영선	홍춘숙	송양진	정영선
박혜경	박혜경	최숙	최영혜
김재흥	오자영		
김재흥	송형운		
이범석	이진영		
이범석	곽상준		
신진식	윤성		

마음으로 읽는 글

어진 사람

- 백무산

어질다는 말

그 사람 참 어질어, 라는 말

그 한마디면 대충 통하던 말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양반이나 상것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그 사람 어진 사람이야, 그러면 대충 꼬덕이던 말

집안 따질 일이며 혼처 정할 일이며 흥허물 들출 일에도

사람을 먼저 보게 하는 말

나머진 대충 덮어도 탈이 없던 말/

시장기에 내놓은 메밀묵맛 같은 사람

조금 비켜서 있는 듯해도

말끝이 흐려 어눌한 듯해도

누구든 드나들수록 승승 바람 타는 사람

보리밥 승냥맛 같은 사람

뒤에서 우두커니 흐린 듯해도 끝이 공정한 사람

휘적휘적 걷는 걸음에 웬지 슬픔이 묻어 있는 사람

반쯤 열린 사립문 같은 사람

아홉이 모자라도 사람 같은 사람

아버지들 의논을 끝내던 그 말

지금은 사라지고 없지만

어질기만 해서 사람 노릇 못해,

그럴 때만 쓰는 말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소속전도사 : 이재훈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장로 :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김현동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우리 앞에는 늘 복의 길과 화의 길이 놓여있습니다. 복된 길을 선택하며 사십시오. 욕심을 버리고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며 선을 위해 싸우는 복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주님의 상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복된 길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욕심에 이끌려 다른 길을 선택하며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좀 더 검소하고,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며, 때론 선을 위해 불의와 싸우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선교회	예수와 만난 사람들 / 김기석 목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이재훈 전도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안길상 권사	이진영 집사 이성범 집사

10월	영접위원	박홍재 홍순구 권혁순 권미숙 안홍숙 박혜경
	헌금위원	한완식 박혜경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우울증의 선물

아주 심한 우울증에 빠져 삶에 대한 모든 의욕을 잃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 믿고 사랑했던 사람에게 속임과 배반을 당했고, 그 배신감 때문에 숨을 못 쉴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

“인생은 덧없는 꿈이다. 아무것에도 집착하지 말자.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불교의 기본 가르침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기도 했고,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잖아. 용서해라 용서해. 그 사람은 네가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는지는 안중에도 없이 즐거운 인생을 구가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 너 자신을 위해서라도 인생 낭비하지 말고 빨리 용서해라” 하며 기독교의 원수 사랑을 들먹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상처받은 마음은 마치 어린아이 같아서 이렇게 ‘고상하게’ 나갈수록 온갖 폐를 쓰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 지난 20년간 해온 명상은 다 어디로 갔는지, 세계 스승들과의 만남과 성지로의 그 긴 순례들은 또 다 무엇이었는지..... 억울하고 분하다고 필쩍필쩍 뛰고 있는 로데오 소 같은 내 마음의 고삐를 쉽사리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십년공부 도로아미타불이라더니 자칭, 타칭 ‘도사 감별사’라던 제가 이렇게 깊이 속임을 당했으니 사람 보는 눈이 완전 ‘삼류’라고 자책하며 어딘가로 숨어 버리고 싶었습니다. ...

이렇게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석 달째 들어서는데 평소에 좋은 느낌을 주던 한 여성 심리 상담사로부터 다섯 마리의 예쁜 나비가 그려진 카드를 받았습니다. 지난번 그가 뉴욕을 방문했을 때, 예상치 못하게 당한 배반 때문에 많이 힘들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

현경 님, 오늘도 하루해가 솟았네요. 고통을 어루만져 주는 따스한 햇살이 우리 삶에 있어 정말 다행이에요. 적어도 얼마간은 고통 중에서 아침잠을 깨실 현경 님을 생각합니다.

현경 님, 고통을 애써 피하려 하지 마시고 오히려 온몸으로, 온 존재로 감싸 안으시기 바랍니다. 실컷 몸부림치고, 실컷 아파하도록 안전한 공간을 마련해 주세요. 그리고 그 아파하는 영혼을 정성껏 돌보시기 바랍니다.

밥 먹을 시간이면 잘 달래서 먹을 것을 챙겨 주고, 어디 가고 싶다 하면 데려다 주고, 자야 할 시간이면 따스하게 보듬어 가능한 한 숙면하도록 해주고...... 틱낫한 스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감정보다 더 큰 존재라고요. 이왕 닥친 고통이라면 그 안에서 진정한 현경 님의 눈부신 자아가 다시 꽃피어나길 바랍니다.

그 친구의 다정한 편지는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제 분노와 우울에 대해 너무 ‘어른인 척’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파하는 제 여린 가슴을 엄마가 우는 아이를 달래듯 안아 주고 그 아이의 억울함과 분노를 들어 주며 울음이 그칠 때까지 기다려 주지 못하고, 빨리 성숙한 어른이 되어 명상하는 사람, 도 닦는 사람답게 ‘에이, 그까짓 것’ 하고 넘어가라고 재촉을 한 겁니다.

그날 이후,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통곡을 하고 온갖 욕도 실컷 하고 나를 배신한 사람에게 긴 편지를 써서 부치기도 했습니다. 친한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내가 이렇게 바보같이 속았다고 털어놓으며 그런 배신자는 천벌을 받아야 한다고 함께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속은 나 자신이 창피하고 분할 때에는 이렇게 다독였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네 잘못이 아니야. 사람을 잘 믿어 주는 건 너의 큰 장점이라고. 사람을 의심하며 사는 삶보다는 가끔씩 큰 상처를 받더라도 사람을 믿으면서 사는 삶이 더 아름다운 거라구. 잘했어. 힘내.”

심리학자들은 우울증을 ‘분노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 버린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분노의 정당한 대상에게 내 분노를 향하게 하고 그 분노의 원인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면 우울증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 그 분노의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내 잘못이라고 자책하며 분노를 나 자신에게 향하게 할 때 우울증에 걸립니다. 우울증은 내 안에 풀지 못한 분노가 있으니 그것을 밝혀 풀어내고 상처받은 나 자신을 잘 보듬어 돌보라며 우주로부터, 참 자아로부터 온 선물이고 메신저입니다.

우리 영혼이 슬퍼하고 있을 때 너무 빨리 어른스럽게 넘어가라고 재촉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충분한 보살핌을 받지 못한 슬픔과 분노는 영혼의 암이 되고 이유 모를 우울증이 되어 우리 걸을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